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697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9년 3월 28일 (음력 2월 22일) 목요일

KT 채용비리 눈덩이… '수상한 선발' 수십명 거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을 비롯해 총 6명의 KT 부정채용에 연관된 혐의를 받는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이 2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성태 의원 딸, 2012년 하반기에 정규직
당시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 이름 없어
2015년 홍문종 의원 측근도 채용 의혹
황교안 · 정갑윤 아들 등 자녀들도 거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에 대한 의혹으로 시작된 KT 채용비리 수사가 전직 임원을 향하며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을 포함한 부정채용 사례를 최소 6건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KT 채용 파문'이 어디까지 번질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석채 전 회장 시절 KT 채용비리 의혹으로 첫발을 내딘 수사는 상당히 진척돼 차근차근 윗선을 향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최근 이 회사 전 전무 김모(63)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김 의원 딸이 KT 공개채용에 최종합격한 2012년 하반기 당시 인재경영실장으로 근무했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됐다. 이후 2012년 하반기 공채로 정규직이 됐다가 지난해 퇴시했다. 검찰은 2012년 하반기 공채 1차 전형인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김 의원 딸의 이름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윗선' 지시를 받고 김 의원 딸 특혜채용에 관여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직후 김 의원은 "(김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도 김씨와 김 의원이 접촉한 적은 없다고 보고 있다. 김씨에게 김 의원 딸의 이력서를 전달하면서 특혜를 지시한 윗선은 서유열 전 KT 홈고객 부문 사장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서 전 사장도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서 전 사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누구의 부탁을 받고 부정채용에 관여했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이나 늦으면 28일 오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서 전 사장이 김 의원 딸을 포함, 총 6명의 부정채용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외 추가 특혜채용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사장은 2012년 하반기 공채에서 절차를 어겨 김 의원 딸을 포함한 2명을 합격시키고 같은 해 홈고객 부문 채용에서 4명을 부정채용한 의혹을 받는다.

조직에서 사장에게 지시를 내릴만한 초고위급 인사는 회장뿐이다. 만약 서 전 사장도 윗선 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할 경우 이석채 전 회장 역시 검찰 수사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 의원 딸 채용과 별도로 황창규 회장 시절인 2015년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측근 영입 논란도 불거진 상황이다. 황 회장은 2014년 1월부터 KT회장을 맡고 있다.

KT 민주동지회는 2015년 KT가 홍 의원 보좌관을 포함한 측근 4명을 특혜채용했다고 주장하며 남부지검에 이들 4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난 20일 고발했다. KT민주동지회는 KT 노조에 비판적이며 KT 새노조의 기반이 된 현장 조직이다.

홍 의원은 2014~2016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위원장을 맡았다. 이 시기 KT 경쟁사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사안은 업계 초미의 관심사였다. 이 때문에 심사권한을 가진 소관 상임위인 미방위원장의 측근을 KT가 특혜채용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 제기된다.

여기에 KT 민주동지회는 20일 고발장 제출 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무급 이상의 황 회장 측근 임원들 자녀 10여명이 부정채용 의혹을 받으며 KT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대표적으로 본사 마케팅 부문 본부장의 자녀가 수도권 강남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도 밝혔다.

또 KT새노조는 최근 성명을 발표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법무장관이던 시절 그의 아들이 KT 법무실에서 근무했고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은 KT 대협실 소속으로 국회담당이었다"며 유력 정치인 자제의 부정채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예정대로 다음달 KT아현지사 화재 관련 청문회가 열린다면 황 회장은 부정채용 관련 질문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김 의원 딸 부정채용 수사를 마무리한 뒤 홍 의원 측근 채용 관련 수사에 착수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광주 · 전남환경단체 "무등산 전기차 운행 반대…복원 힘써야"

환경훼손 · 안전사고 · 비산 먼지 발생"

광주시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 중 무등산국립공원 내 친환경 차 시범운행을 추진할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지역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전남녹색연합 등 8개 지역 환경단체는 27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무등산국립공원 전기차 운행은 지난해 광주시가 검토하다가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환경훼손과 안전사고 우려, 운행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을 이유로 반대한 사안이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무등산국립공원 정상에 위치한 군 부대 이전과 복원에 힘을 쏟아야 할 때 오히려 이용과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광주시 행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무등산은 '이용'이 아니라 '복원'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5년 12월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협약이 체결됐지만 이전 대상지 문제로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고, 중머리재 · 장불재 일원의 방송통신시설 또한 이전해야 한다"면서 "무등산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관련 문제 해결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이용과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시는 무등산국립공원을 온전하게 복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면서 "오히려 차량을 운행하고 도로를 정비해야 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광주시의 반 환경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26일 간부회의에서 "세계수영대회가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환경단체와 무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의견을 수렴해 대회 기간 중 무등산에서 친환경차를 시범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서은홍 기자

Photo 漫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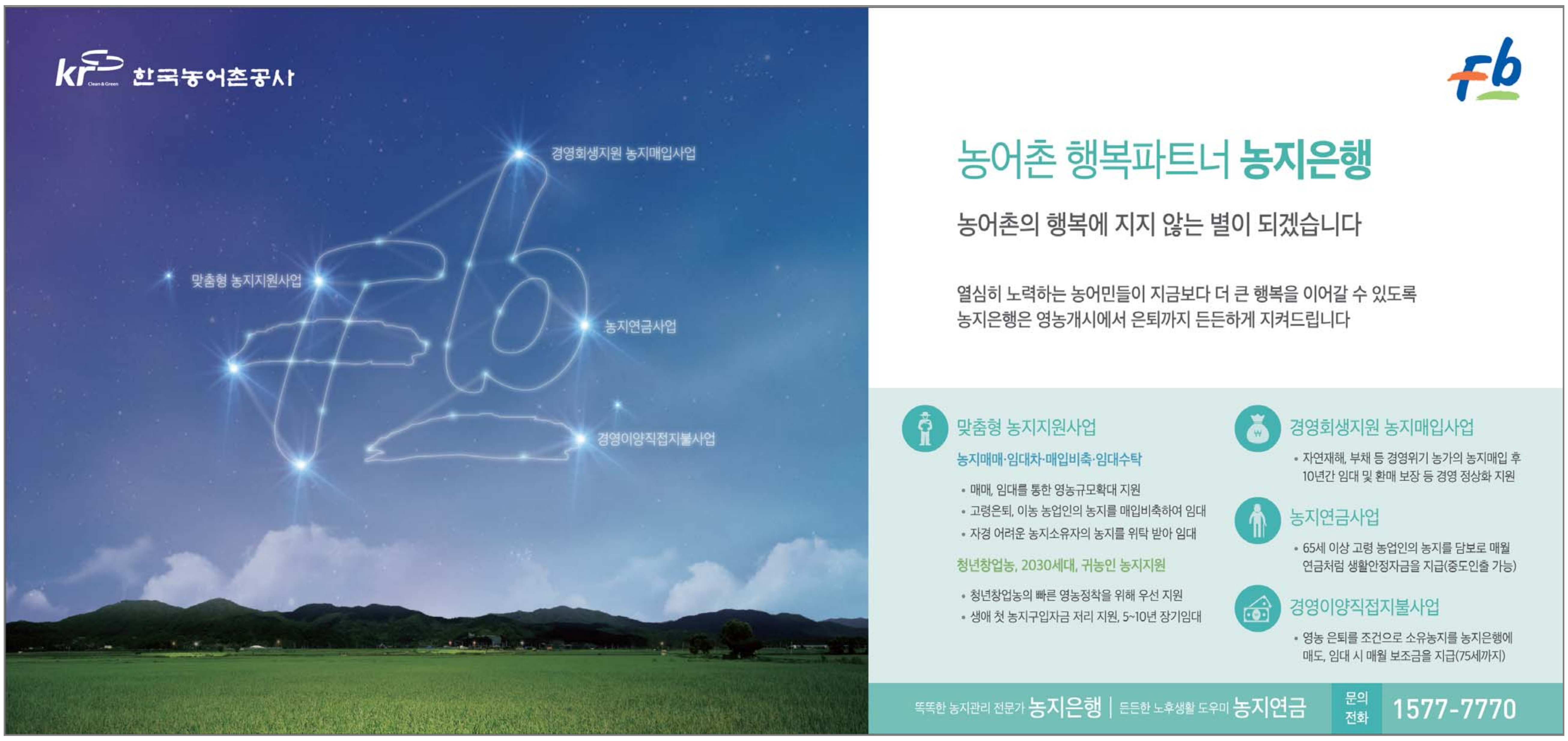
원대복귀?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바른미래당을 택한 국민의당 출신 의원 중 일부가 평화당으로 당적을 옮기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26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의 평화당행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그러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 자신도 (평화당으로 오려는 의원들과) 대화를 했다"며 현재 자유한국당의 변하는 모습이나 바른미래당이 어떻게 움직일까 하는 것은 다른 당 문제이기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지만 그러한 움직임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의원들이) 그런 의사를 먼저 가지고 있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접촉하고 지금도 국회에서 오며 가며 조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가느냐' 하는 정도의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소개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기자 · 자료사진=뉴시스